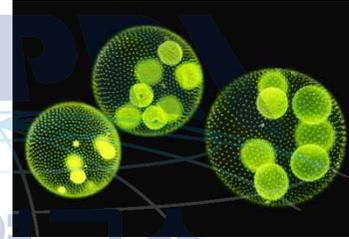


## 제3차 유엔BBNJ 준비위원회의 논의동향 및 시사점



2017. 4. 21(금)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발표순서



유엔 BBNJ 준비위원회의 개관



제3차 유엔 BBNJ 준비위원회의 주요결과



향후 전망  
극지연구소

# 유엔 BBNJ 준비위원회의 개관

극지연구소



# 1. 유엔 BBNJ회의의 논의경과 (1)

2004년 제59차 유엔총회 결의(UNGA/Res A/59/24)에 근거하여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임시작업반회의” 설치

## 유엔해양법협약 체계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1994년 발효, 167개국)  
 1994년 심해저이행협정(1996년 발효, 148개국)  
 1995년 공해어업협정(2001년 발효, 83개국)



- 2004.1 유엔총회 결의 59/24에 따라 작업반 설치
- 2006.2 제1차 WG : ABNJ 법적/사회경제적/환경적 이슈 종합적 논의 (공해상 IUU, 해양유전자원)
- 2008.4 제3차 WG : 새로운 국제레짐 vs 기존레짐 활용, package deal 처음 등장
- 2010~2013(제4~6차 WG) : 인류공동유산원칙 vs 공해자유원칙, 이행협정 vs 기존레짐
- 2014.4(제7차 WG) : 본격적인 “국제문서” 에 대한 논의 개시, MPA/MGR에 대한 대립지속
- 2014.6(제8차 WG) : 국제문서의 범위, 기준, 실현가능성 논의
- 2015.1(제9차 WG) : 법적 구속력있는 국제문서 개발에 합의, 기존질서 undermine하면 안됨

❖ UNGA 69/292 (2015)  
 - ILBI under UNCLO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BNJ  
 - 준비위원회 설치(4차례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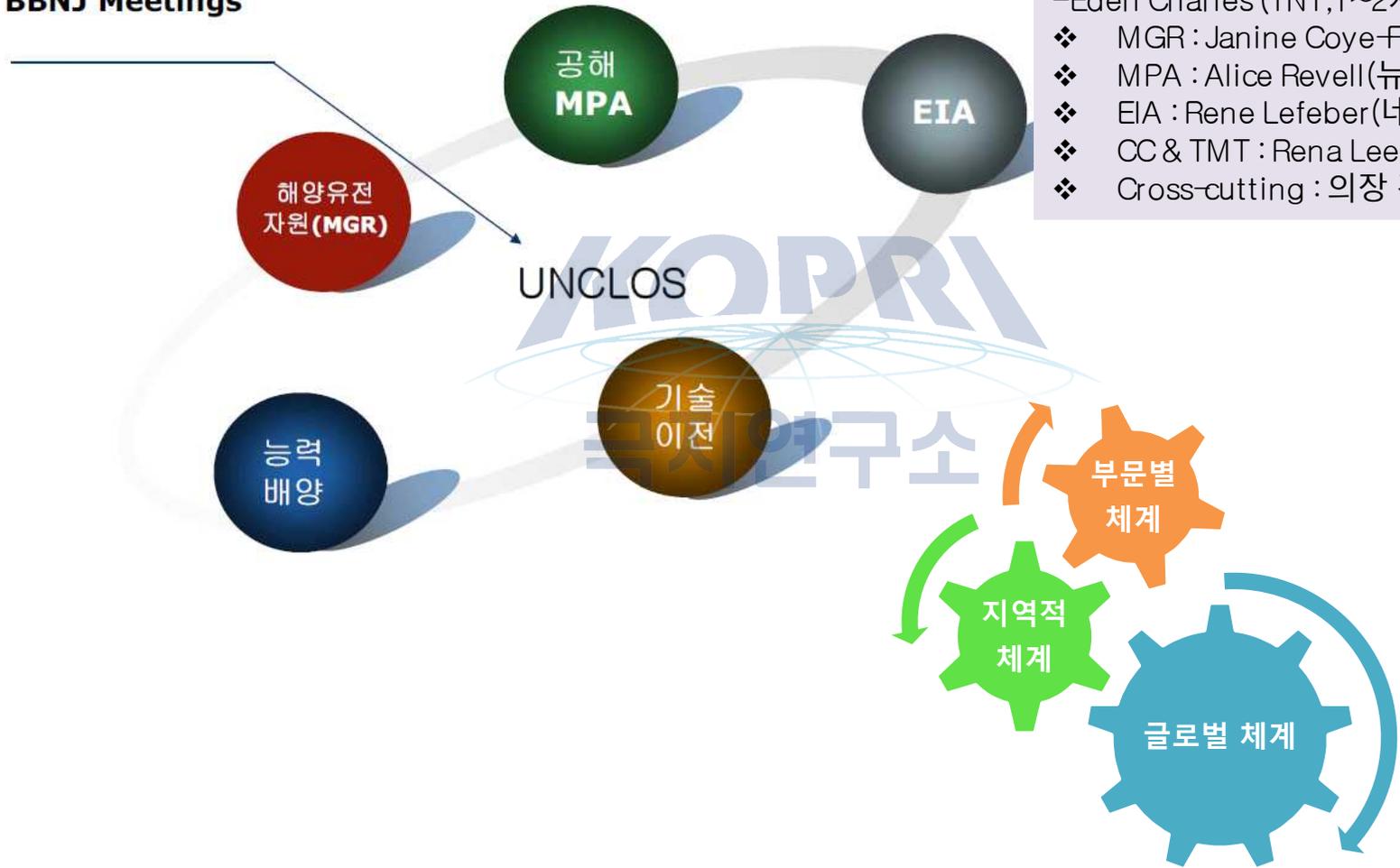
❖ 제1차 준비위(16.3~4)  
 - 2011년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 입장표명, indicative list 도출

❖ 제2차 준비위(16.8~9)  
 - convergence vs further discussion (4대이슈+교차)

❖ 제3차 준비위(17.3~4)  
 - chair's Nonpaper 기초로 논의  
 - 쟁점별 선진국vs개도국 대립

# 1. 유엔 BBNJ회의의 논의경과 (2)

## UN BBNJ Meet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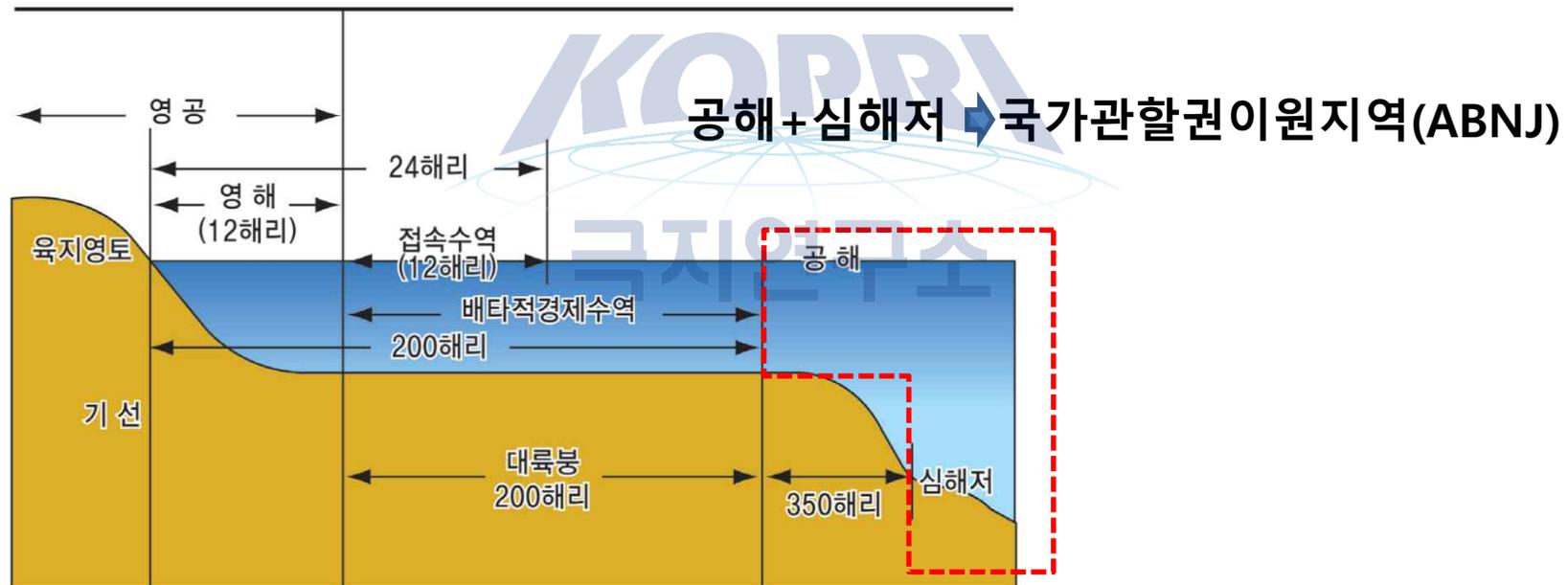


- ❖ 의장 : Carlos Sobral Durate(브라질)  
-Eden Charles (TNT, 1~2차 준비위)
- ❖ MGR : Janine Coye-Felson(벨리즈)
- ❖ MPA : Alice Revell(뉴질랜드)
- ❖ EIA : Rene Lefeber(네덜란드)
- ❖ CC & TMT : Rena Lee(싱가포르)
- ❖ Cross-cutting : 의장 겸임

## 2. 유엔해양법협약 상 해양관할권 구분

국가관할권내(영해, 대륙붕, EEZ)와 다른 ABNJ(공해, 심해저)에 대한 새로운 국제질서 논의

- 공해자유원칙 + 공해생물자원보존의무
- 전세계의 64%에 해당되는 ABNJ에 대한 강력한 국제규범체계 구축 논의 본격화



1해리 = 1,852m

ABNJ(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3. 전세계 ABNJ의 분포

- ◆ 해양은 지구의 71%
- ◆ 공해+심해저는 해양의 64% 추정
- ◆ 공해는 지구표면의 45%



# 제3차 유엔 BBNJ준비위원회의 논의동향 및 쟁점

극지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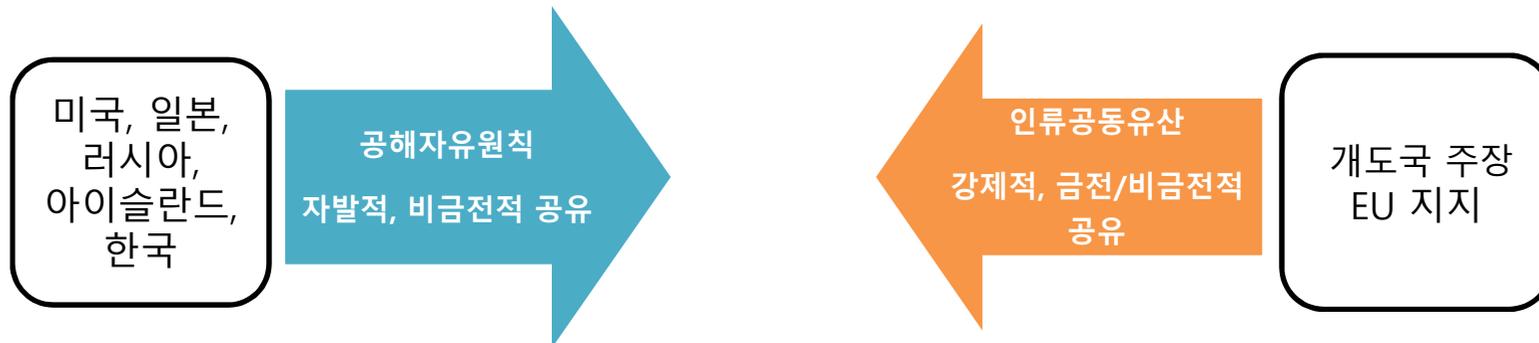


# 1-1. 그동안 MGR 논의동향

- 해양유전자원(Marine Genetic Resources)은 개발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영향으로 논의시작
- 접근(access): exploring → 이익공유(Benefit Sharing) 중심으로 개도국 주장 수정

- 2010년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은, BBNJ MGR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인류공동유산원칙”에 기반한 이익공유 주장. 관할권 내는 개별국가의 생물자원주권 有

- 2011년 package deal 합의시, 개도국은 MGR에 가장 지대한 관심
  - marine genetic resources including benefit sharing
- 심해저 유전자원 -> 공해+ 심해저 유전자원 -> 유전자원+ 파생물 -> 유전자원+ 파생물+ in silico
- fish as a commodity vs fish used for their genetic properties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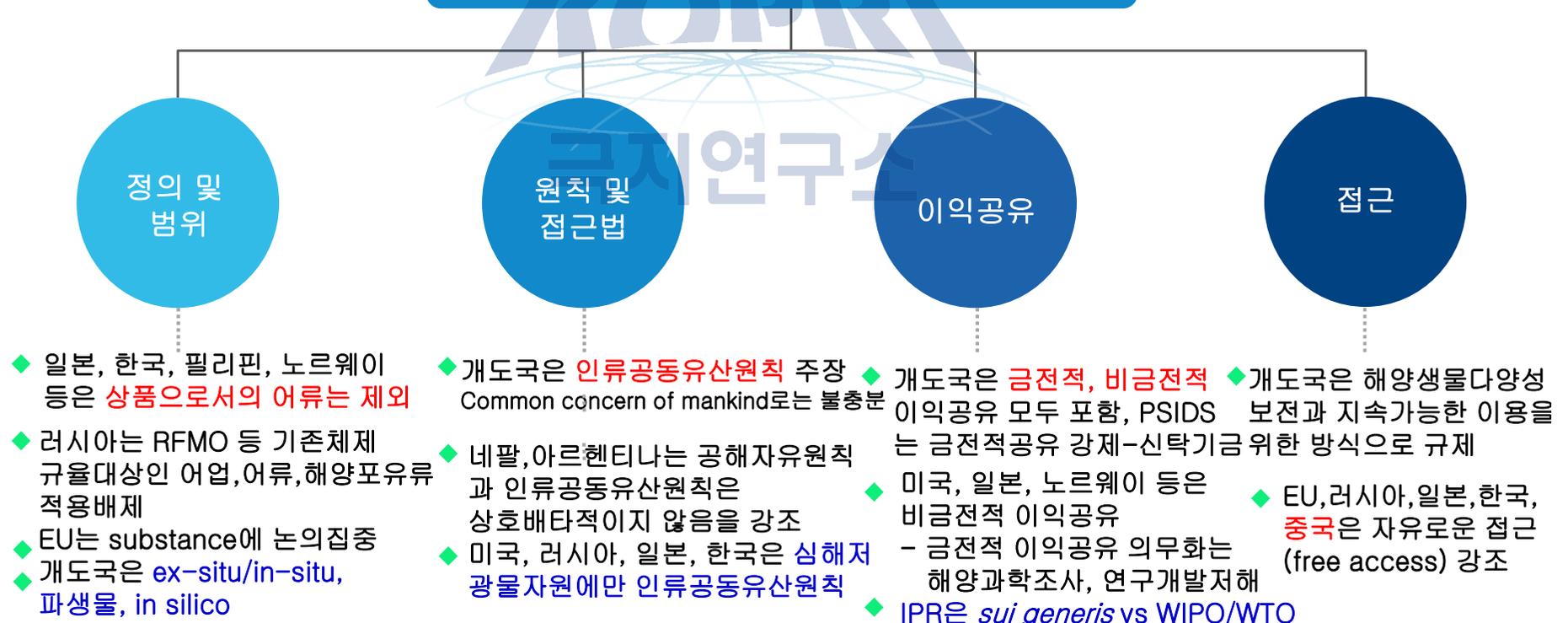


# 1-2. 제3차 BBNJ 준비위원회의 MGR 논의결과

## 핵심쟁점

- ◆ 유전자원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개도국과 선진국 대립 지속
- ◆ 인류공동유산원칙 vs 공해자유원칙
- ◆ 금전적+비금전적 이익공유/ 접근규제 vs 비금전적 이익공유/자유로운 접근

## 유엔 BBNJ 국제문서 MGR 주요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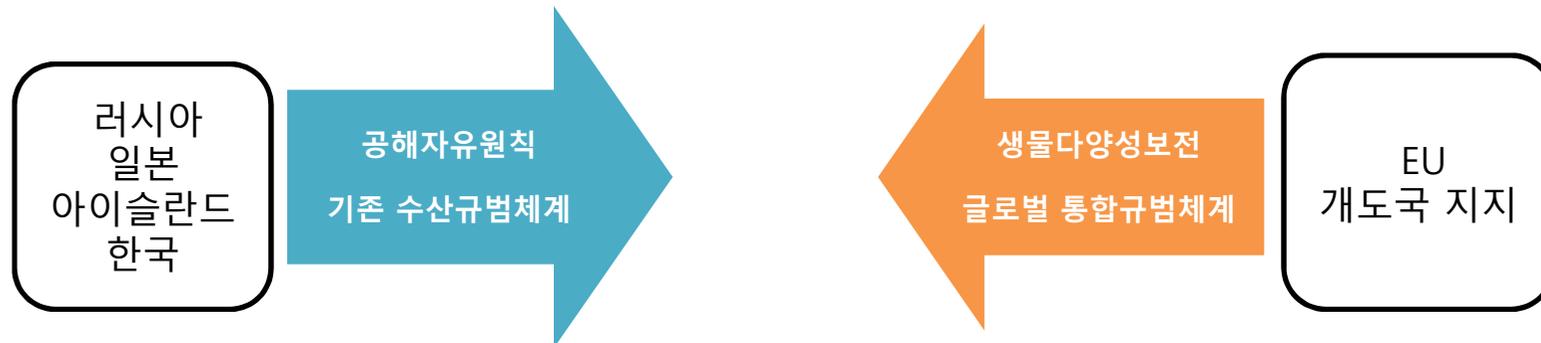


## 2-1. 그동안 MPA 논의동향

- 유엔 BBNJ작업반회의는 06년에 “저층트롤 어업” 이슈로 시작
- 지역기반관리수단(Area Based Management Tools, ABMTs)의 한 유형으로서 MAP 논의 시작

- 지역관리기반수단은 항행(IMO), 수산(FAO, RFMOs), 생물종(UNEP 지역프로그램) 등과 함께 MPA가 논의되었으나, 현재는 “공해 MAP”에 논의 집중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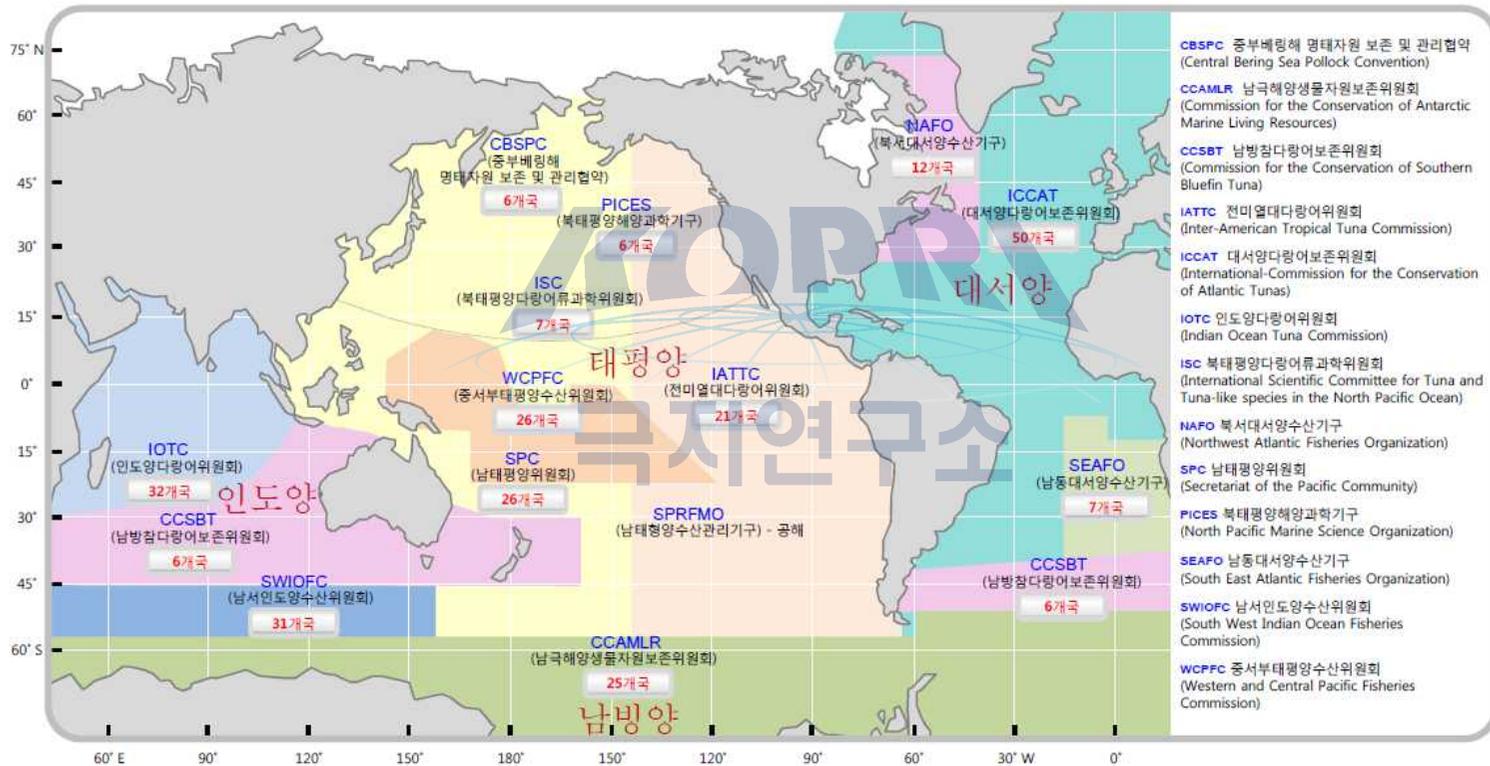
- 유엔공해어업협정, FAO 책임있는 어업행동강령, RFMOs(남극생물자원보존협약 지역 포함) 등의 파편화된 부문별 관리체계로는 한계 직면, 글로벌 통합규범체계 필요 강조 (EU 중심)
- 일본은 수산에 대한 BBNJ 국제문서 적용에 반대했으나, 16.7월 입장전환/ 반대 안함.
- 미국은 수산, 항만, 광업 등 ABNJ 내 인간활동 중 수산만 제외하는 것은 논리 부족 지적



## 2-2. 국제수산기구 수역도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공해  
- 중부베링해(CBSPC)

### 국제수산기구 수역도 | Competent Areas of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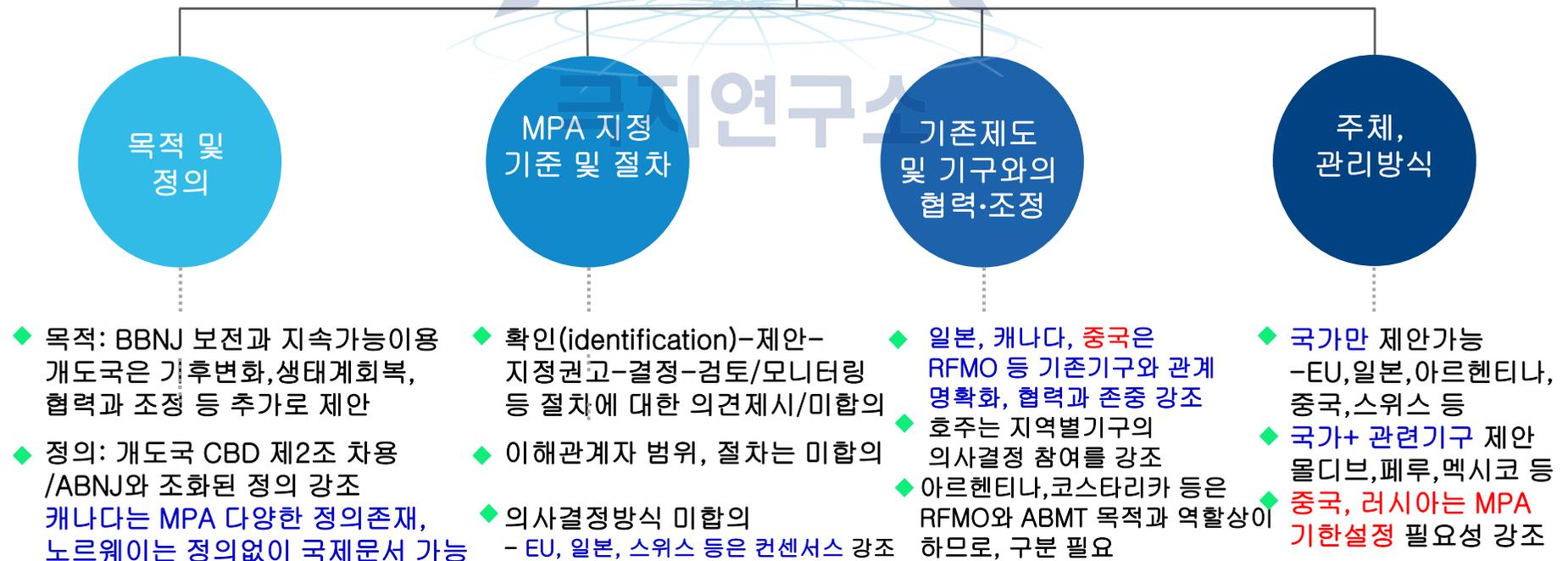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지역수산기구(RFMO)의 가입현황 : 17개 가입, 1개 가입 추진 중**  
 APFIC(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50.1),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70.8), WECAFC(중서대서양수산기구/74.1), CEEAF(중동대서양수산기구/74.1), IWC(국제포경위원회/78.12), **CCAMLR(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85.4)**, **PICES(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92.3)**, NAFO(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93.12), CCBS(중부베링공해명태협약/95.12), IOTC(인도양참치위원회/96.3),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01.10), NPAFC(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03.5),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04.11), IATTC(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05.12), SEAFO(남동대서양수산기구/11.4), SPRFMO(남태평양수산관리기구/12.4), SIOFA(남인도양수산협정/14.10), **NPFC(북태평양수산위원회/가입추진)**

## 2-3. 제3차 BBNJ 준비위원회의 MPA 논의결과

### 핵심쟁점

- ◆ 공해 MPA의 목적이 “BBNJ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데는 의견수렴
- ◆ MPA 지정기준, 절차, 관리주체, 사후관리, 자원확보 등
- ◆ MPA의 정의, 절차(지정주체, 협의, 의사결정 등), 기존기구와 관계, 원칙 등 대립

### 유엔 BBNJ 국제문서 MAP 주요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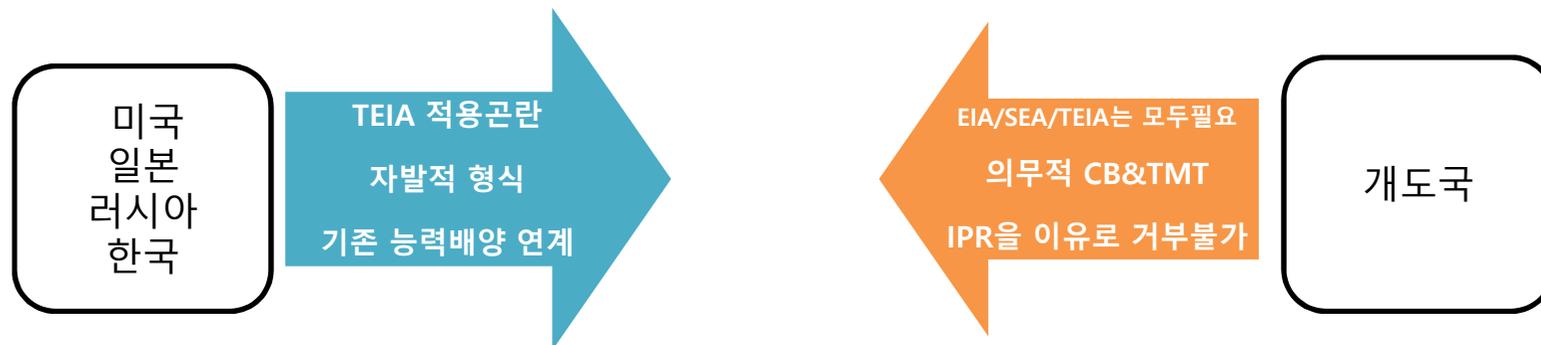


## 3-1. 그동안 EIA와 능력배양/기술이전 논의동향

- EIA(환경영향평가) → EIA+ SEA(전략환경평가) → EIA+ SEA+ TEIA(월경성 평가)로 논의확대
- EIA의 적용대상, 접근법/원칙, 주체,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제시, 합의된 사항 없음

- 개도국의 능력배양 필요성은 공감. 유엔해양법협약상 개도국에 대한 우선적 능력배양에도 공감
- 능력배양의 방식(자발적 vs 의무적), 구체적 내용, 자원, 지역연구소 설립여부 등에 대해 미합의

- 해양과학기술 이전방식, 해양과학기술에 정의(국제문서의 규율대상이 되는 MT) 등 논의
- 지식재산권(IPR)에 대한 적용
- 정보공유체계의 활용범위, 민간부문의 규율 여부 등에 대한 의견 대립



## 3-2. 제3차 준비위 EIA/ CB 및 기술이전 논의결과

### 핵심쟁점

- ◆ EIA 범위, 발동요건(threshold),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대립
- ◆ TEIA : 아프리카그룹 (필요) vs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불필요)
- ◆ 능력배양과 기술이전: (개도국)의무적/금전적+비금전적 vs (선진국)자발적/비금전적

### 유엔 BBNJ 국제문서 EIA/CB/TMT 주요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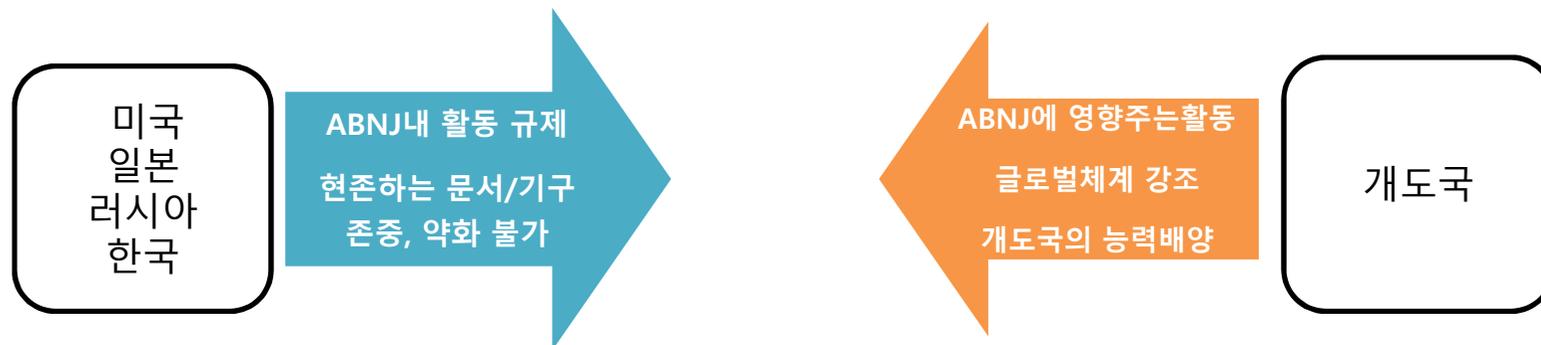


## 4. 제3차 BBNJ 준비위원회의 교차이슈 논의결과(1)

- 국제문서 지리적 범위는 어느정도 의견수렴(공해, 심해저 및 상부수역)
- 물권적 범위 : 선진국(ABNJ내 행위로 한정) vs 개도국(BBNJ에 미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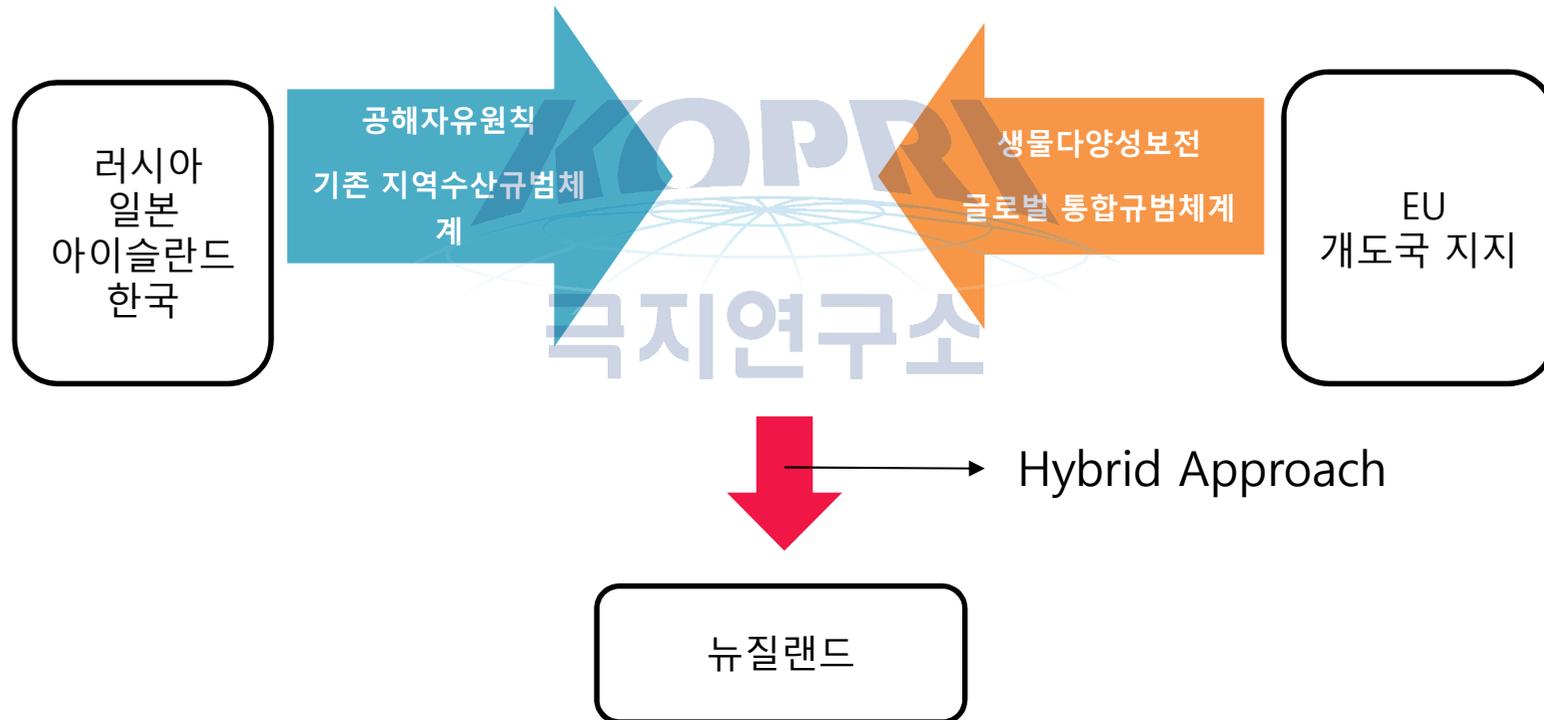
- 인접성의 원칙(Adjacency approach)에 대한 의견 대립
  - 러시아, 개도국은 찬성 vs EU 불필요, 한국도 부정적 입장
- 타문서와의 관계 : UNCLOS 기반, 현존하는 문서의 지원 및 강화
- 일본은 RFMO 미존재구역에 새로운 기구설립 주장, 미국은 MPA에 대한 지역적/부문별 접근 강조

- 러시아는 지역적, 부문별 국제문서/기구가 존재하는데, 글로벌체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undermine한 것이라고 지적. 기본적인 공감대 없는 추가적 논의는 무의미
- 기구설치와 관련해서는 COP, 사무국, 과학기술기구, CHM, ABS mechanism 등 논의



## 4. 제3차 BBNJ 준비위원회의 교차이슈 논의결과(2)

Undermine의 해결방법 : Hybrid Approach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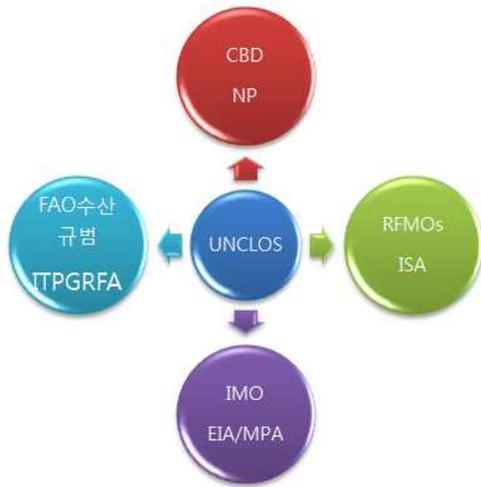
자료 : 김대경, 박수진(2017), 2017 해양공동학술대회

**향후 전망**

극지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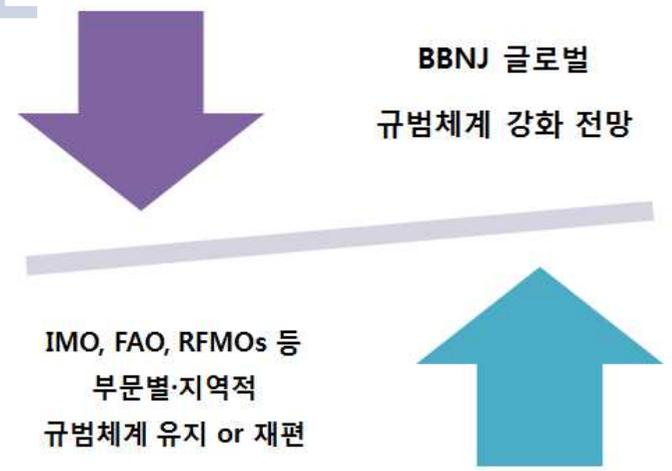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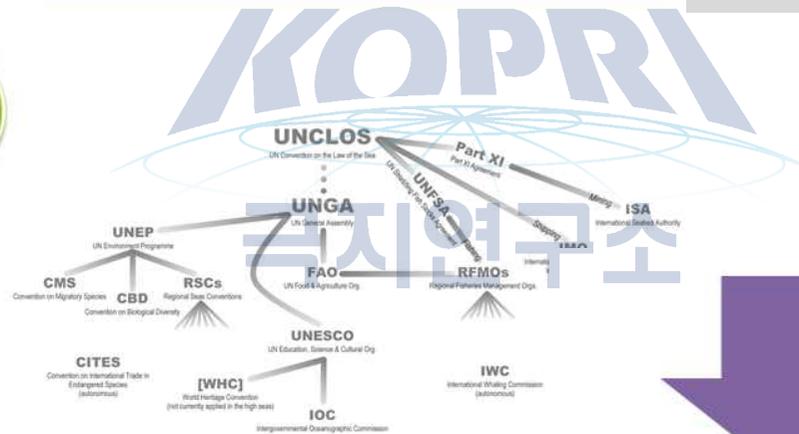


# 1. 기존 국제문서/기구의 관심/목소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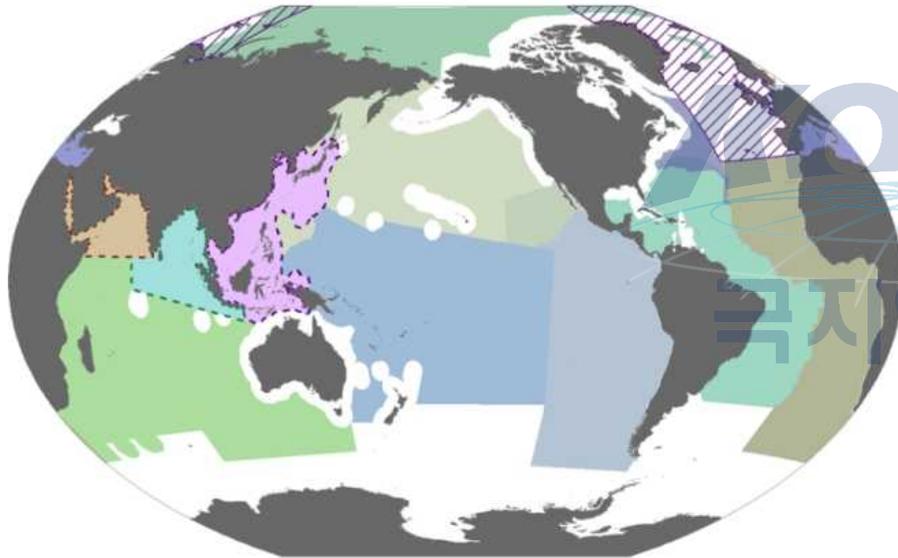
MGR : FAO ITPGRFA, 나고야 의정서 등  
 MPA : CBD EBSAs, FAO, IUCN 지침 등 참고 가능  
 EIA : 남극환경보호의정서, 런던의정서 등 참고 가능  
 능력배양 : 아디스아바바 선언(2015) 등  
 해양과학기술이전 : UNCLOS 제14부, 나고야 의정서 등

- ❖ RFMO는 생태계기반관리방식을 이미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
- 자원조성, 쿼터관리만이 목적이 아님 강조
- ❖ BBNJ 국제문서에서의 지역/부문별 기구, NGO의 역할/참여 강조 가능성 증가
- ISA(MGR), MPA(RFMO/IMO/IUCN),
- ISA, IOC(CB, TMT)



## 2. 유엔BBNJ MPA 후보군

### CBD EBSAs(생태적·생물학적 핵심해역)



Annex I  
Regional workshops on the description of EBSAs convened by the Executive Secretary

Regional workshop on EBSAs	Date	Host country	No. of participants	No. of organizations	EBSAs (A)	EBSAs with NI (B)	EBSAs with ABNJ (C)	Status
Western South Pacific	Nov 2011	Fiji	15	10	26	22	11	Reviewed by SBSTTA-16 and COP-11
Wider Caribbean & Western Mid-Atlantic	Feb-Mar 2012	Brazil	23	15	21	21	5	Decision XI/17
Southern Indian Ocean	July-Aug 2012	Mauritius	16	20	39	30	13	Reviewed by SBSTTA-18 and COP-12
Eastern Tropical & Temperate Pacific	Aug 2012	Ecuador	13	12	21	18	7	Decision XII/22
North Pacific	Feb-Mar 2013	Russian Federation	8	7	20	15	5	
South-Eastern Atlantic	April 2013	Namibia	17	15	45	42	7	
Arctic	March 2014	Finland	7	13	11	9	2	
North-West Atlantic	March 2014	Canada	2	5	7	0	7	
Mediterranean	April 2014	Spain	21	16	17	**	**	
North-East Indian Ocean	March 2015	Sri Lanka	5	7	10	10	2	To be reviewed by SBSTTA-20
North-West Indian Ocean and Adjacent Gulf Areas	April 2015	United Arab Emirates	14	16	31	31	2	
East Asian Seas	December 2015	China	12	6	36	34	1	
Sum			153	142	284	232	62	

\* Note: Some countries and some organizations have participated in more than one workshop.  
 \*\* Information is not available.  
 \*\*\* These numbers do not include those from the Mediterranean.  
 (A) Number of areas described to meet the EBSA criteria by the workshop.  
 (B) Number of areas described to meet the EBSA criteria wholly or partly within national jurisdiction.  
 (C) Number of areas described to meet the EBSA criteria wholly or partl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Note: A does not equal to B+C because some EBSAs contain areas within and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유엔 BBNJ  
MPA 후보  
- EBSA 중에서

- ◆ CBD는 10년부터 지역워크숍을 통해 EBSAs 기술 (전세계 해양의 74%, 남극지역 제외시 82%)  
- 국제법상 개별국가 권리와 의무에 미영향, BBNJ국제문서 성안에 우선불가 (COP10/COP9 결의문)
- ◆ **향후 EBSAs 중 MPA 발전가능성 있음.**  
**(ABNJ+ 공해 : 36개, 공해만 : 33개)**

### 3. 향후 대응방향

협상목적공유

전략적 대응

- ◆ IMO/수산결의안/지역수산기구/ISA 등 관련 논의에 대해 정보공유, 공동대응
- ◆ 새로운 국제문서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및 최소화 대책 마련
- ◆ 기존 국제문서, 기구의 기능에 대한 심층분석
  - 용어정의, 세부조항별 내용 등

(예시)

MGR	ABM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BD 제2-5조</li> <li>- 나고야의정서 제2조</li> <li>- ITPGR 제2조</li> <li>- UNCLOS 제1, 76, 86, 133, 136, 157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UCN 보호구역 관리 지침</li> <li>- CBD 제2조</li> <li>- IMO PSSA Guidelines</li> <li>- MARPOL 73/78 특별해역</li> <li>- CBD COP IX/20: EBSA</li> <li>- FAO 공해 심해어업관리지침</li> <li>- HELCOM 등 RFMO 규정</li> </ul>
EIA	CBTM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EP EIA 목표 및 원칙</li> <li>- CBD 제14조</li> <li>- Espoo 협약</li> <li>- UNCLOS 제204, 206조</li> <li>- Rio 선언 1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디스아바바 선언</li> <li>- CBD 제18조</li> <li>- 나고야 의정서 제22조</li> <li>- UNCLOS 제266-67조 등</li> </ul>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극지연구소